

# “별마늘 피해는 자연재해, 대책 마련을”

마늘생산 농가들 전남도청앞서 가격 폭락 시위  
“생산비도 못건져...kg당 4000원은 보장돼야”

“별마늘 피해는 자연재해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수입 감치가 밀고 들어와 마늘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도 못 건진다. kg당 4000원 보장하라.”

전남지역 마늘 생산 농가들이 25일 무안군 남향읍 전남도청 앞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마늘값 폭락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고흥·해남·강진·신안·무안지역 마늘 농가 50여명은 수확한 마늘을 1t 트럭 3대에 가득 싣고 와 아스팔트에 자리를 깔고 앉아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고흥에서 마늘 농사를 짓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농민 송정진(47)씨는 “정부가 휴대전화로 외국에 많이 팔려도 농산물을 개방하면서 마늘 농사를 지어도 해마다 생산비도 못 건진다”며 “마늘값 폭락은 모두 정부 탓”이라고 말했다.

어느 식당을 가든 수입 배추김치가 식탁에 올라온다. 김치를 죄다 수입산을 쓰니 마늘, 고추, 양파 등 양념농산물은 해마다 폭락이고 또 폭락”이라며 “잘못을 정부가 했으니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정부 마늘 수매가가 kg당 2300원으로 책정돼 공판장에서도, 발매기 거래(포전거래) 상인도 시세를 그 이상 쳐주지 않는다”면서 “농민들이 생산비라도 제대로 건지려면 정부가 농가 요구대로 kg당 4000원씩 수매하고, 수매량도 농민들이 원하는 양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울겨울 이상기온 영향으로 생겨난 ‘별마늘’ 대책 수립도 정부에 요구했다. 별마늘은 웃자라 상품성이 떨어진 마

늘로 쪽마다 나서는 안 될 새순이 돌아난 것들이다. 시장에 내다 팔더라도 농민들이 손에 짤 수 있는 건 정부 수매가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kg당 1000원 안팎이다.

지난 1-2월 겨울철 온도가 높아 발생한 2차 성장 피해로, 전남에서 주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과 대서종 마늘에서 피해가 컸다고 농민들은 전했다.

농민들은 “가장 추워야 할 겨울철 날씨에 예년보다 최소 3도 이상 높아 겨울에 잠을 자지 않고 마늘이 웃자란 것”이라며 “별마늘은 배, 사과 냉해 피해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자연재해”라며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고흥·해남·신안·강진·무안 등에서 남도종 등 마늘 종류에 따라 재배 면적의 20~70%가 별마늘이 생겨나는 피해를 봤다”며 “정확한 피해 면적 집계는 농협과 시군 조사가 마무리돼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지역 마늘 생산 농가들이 25일 무안군 남향읍 전남도청 앞길에서 집회를 열고 마늘값 폭락 대책과 별마늘(웃자라 상품성이 떨어진 마늘) 피해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이용섭 시장, 공약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전 분야 SA등급 광주 유일

광주시가 올해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 광주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에 선정됐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종합평가 뿐만 아니라 공약이행안료(45점 이상), 목표달성

(98점 이상), 주민소통(75점 이상) 등 3개 모든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은 유일한 광역단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1차년도 평가가 공약실천계획서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 평가는 공약안료이행 정도와 전년 계획대비 이행도, 주민소통 정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 이행사항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안료(100점) ▲목표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공약이행지도(Pass/Fail) 등 5개 지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형 협치 마을’ 본격 추진

광주시는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광주형 협치 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방림2동과 학운동·지산1동·서창동·농성1동·사직동·월산동·문흥2동·운암1동·석곡동·신흥동 등 11개 마을이 협치 마을로 선정됐다.

광주형 협치마을은 마을 내 구축된 협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을 현안과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 마을교육, 마을의 제 발굴,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 의제 선정, 마을계획 수립 및 마을의제 실행 등도 추진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

##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위해 앞장”

‘사용후 핵연료 보관세’ 추진  
농정개혁 목표 의정활동 펼 것  
장성 심혈관센터 건립 등 주력  
호남 민심 대변·발전 이끌 것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62)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당선인은 25일 “호남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지역 당선인들과 함께 호남 민심을 대변하고, 호남지역을 위해 짊어져야 할 역할과 요구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광주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주시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문재인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우선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역민 뜻을 무겁게 받들어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4·15 총선을 통해 호남의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다.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호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호남의 발전을 이끌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려주셨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당선인은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천이자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중앙집중 및 연속에 따른 불

균형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역이 중앙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자치체계를 형성하여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것은 재정적 예측”이라며 “재정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의 일을 지역이 결정하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우선에 두고 제정을 추진할 법률안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꼽았다.

그가 발의할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전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당선인은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인 영광군은 한빛원전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차례로 원전이 폐로(폐쇄)를 앞두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광군에만 연간 250억여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돼 폐로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한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재정적 활력을 불어넣는 법률안이다.

이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어민의 지속적인 영농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개혁 등을 큰 목표로 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영광 e-모빌리티 산업 육성, 담양 한곡원센터 설립, 함평 빛그린산단 배후단지 활성화,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 지역구 현안사업도 충실히 챙기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아울러 “정치만이 어렵고 소외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일 잘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정치하는 동안 소신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금호고교와 전남대(경영학)를 졸업했다.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남도 행정사무관, 목포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 제19·20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81.95%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 무소속 김선우 후보와 민생당 김연관 후보를 제치고 지역구를 지켜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내 11곳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지정

영광 향화도·영암호 2차 반영

해양수산부의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전남도내 11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반영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 여수 소호·이순신·엑스포, 광양, 고흥 남일, 해남 화원, 완도, 진도 등이 1차 계획에 포함된 데 이어 영광 향화도, 영암호 등 2개소가

신규 반영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 마리나 항만이 지정됐다. 이 계획은 지역별 마리나 예측수요에 따라 마리나 항만 시설 확충과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 방향은 해양레저 대중화를 비롯 마리나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제공, 연안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이다. 이번 2차 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 전국 3만5000여 규모의 레저선박 수

요에 대해 7개 권역으로 구분,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70개소를 지정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문화 확산과 마리나 산업 활성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위광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민소득 증가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해양레저가 대중화되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며 “마리나 항만 등 해양레저 기반 확충과 다양한 해양레저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전남을 해양레저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